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37-80
<https://doi.org/10.29212/mh.2022..122.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해군의 상징, ‘해군기’

신성재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해군 역사서에 서술된 해군기
 3.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그 문양
 4. 해군기 문양의 의미와 제작의 주인공들
 5. 해군기 문양의 연원과 영향
 6. 맺음말

초 록 해군기는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이 글은 한국 해군을 대표하는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문양에 반영된 상징,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해군기에 관한 공식 역사 서술은 해군본부가 1961년에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에 나타난다. 해당 역사서는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에 제정된 것으로 서술한다. 제정된 해군기는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 교차된 닻으로 구성된 오늘날과 동

일한 문양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대 해군화보집에는 닳이 없다. 분석 결과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처음 출현하였으나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교차된 닳이 포함되어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으로 완성된 것은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1948년 8월 15일 즈음이었다.

해군기의 진남색 바탕지는 삼면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바다를, 교차된 닳은 해군의 단결을, 태극은 한국을 상징한다. 해군기를 제작한 주인공으로 확실한 인물은 손원일과 정공모 제독이다.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장호근도 기록상 개연성이 높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군기 문양 중 태극은 한국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다, 그러나 교차된 닳은 미군정기에 미국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 문양에서 유래한다. 창군기부터 미국 해군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던 상황에서 이를 해군기 문양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문양사적인 측면에서 해군기 문양에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미 해군식의 교차된 닳 문양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군기는 제정된 이후 해군 부대기 제작의 기준이 되었다. 장교와 부사관이 패용하는 ‘근속 30주년 기념휘장’ 문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태극과 교차하는 닳으로 형상화된 해군기 문양은 해군 장교의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을 장식하는 문양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제어 : 한국 해군, 해군기, 문양, 상징, 태극, 닳

(원고투고일 : 2021. 12. 18,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1. 머리말

한국 해군을 대표하는 것으로 군기(軍旗), 군가, 구호, 정신, 문양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해군기(海軍旗)는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장병들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해군가(海軍歌)도 해군을 대표한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깃든 경례 구호 필승(必勝)도 마찬가지다. 손원일(孫元一) 제독이 해군 창설과 더불어 실천 지침으로 표방한 충무공정신(忠武公情神)은 충무공5대 정신으로 정립되어 해군을 대표하는 정신이 되었다. 각종 공식 문서와 상장, 수첩, 증명서 등의 바탕을 장식하는 해군표지(海軍標識) 문양 역시 해군을 대표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해군을 대표해온 얼굴이자 상징인 해군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군기는 소속 군과 부대를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¹⁾ 해군기는 해군을 대표하는 군기이다.²⁾ 해군기가 처음 출현한 것은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이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로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³⁾ 해군기는 이 시기에 출현하여 해군 건설에 뛰어 들었던 장병들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주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진 6·25전쟁기에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하나로 모으고 승리의 투혼을 발휘하게끔 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해군기는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1) 국방부, 『군기령』(대통령령 제14223호, 1994.4.30.), 일부개정.

2) 해군본부, “해군 군(부대)기 규정,” 『해군규정』 제2511호(2021.3.9.), 일부개정.

3) 손원일 제독을 비롯한 해양선각자들이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을 창단한 것이 1945년 11월 11일이었다. 해방병단은 이후 1946년 6월 15일에 조선해안경비대대로 발족하였다.

장병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사기와 투지를 고양시키는 데 있어 무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해군기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본질적으로 해군정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해군기가 출현한 뒤 다양한 부대기들이 제정되었는데,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군기의 제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문양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해군기 문양의 역사적인 연원과 후대에 끼친 영향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해군기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군기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해군본부가 1961년에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 속에 서술된 내용이 전부가 아닐까 싶다.⁴⁾ 서술된 내용은 단편적이고 소략하다. 해사신문에도 해군기 유래에 관한 글이 간명하게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해군본부가 발행한 해군사의 한자식 표기를 한글로 바꾼 것일 뿐 내용은 동일하다.⁵⁾ 해군본부가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에 따르면, 해군기는 해군이 창설되던 시점에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으로 제정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창군기의 실상을 담은 화보집과 관련 기록물에는 그와 달리 해석될만한 자료가 있어 자세한 분석이 요망된다.⁶⁾ 해군기를 제정하던 과정에서 문양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기존 해군사 서술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를

4)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第3輯(行政·作戰合編), 海軍教材廠, 1961, 21~22쪽.

5) 『玉浦』 제2004호(1966년 2월 10일); 『해사학보』 제2703호(1972년 11월 1일).

6)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해군본부가 발행한 해군화보집과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하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 기록물 자료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 기록물은 해군본부가 1950~1980년대까지 생산해낸 복제사 관련 자료들이다. 현재 이 자료들은 해기단이 원본과 함께 CD본 형태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다(관리번호: 14-D-전-000020). 논문 작성의 편의를 위해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CD본 자료집에 대해서는 잠정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정한 주인공들과 제정된 해군기가 이후의 해군 문양사에 미친 영향도 밝혀진 것이 없다. 이 점 역시 해군기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으로 적극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상 제시한 문제 의식과 새롭게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인 해군기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논지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해군이 발행하고 있는 공식 역사서인 『대한민국해군사』에서 해군기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제시하면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추출해 낼 것이다. 3장에서는 해군기가 제작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해군기 문양의 변화상을 추적하고 공식적으로 해군기가 제정되는 시점을 밝혀낼 것이다. 4장에서는 해군기 문양에 반영된 역사적인 의미와 그동안 해군 역사서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해군기 제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5장에서는 해군기 문양의 연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정된 해군기 문양이 이후 해군의 문양과 상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문양사적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2. 해군 역사서에 서술된 해군기

한국 해군은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에서 출발하여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8월 15일에 이르러 '대한민국해군'으로 발족하였다.⁷⁾ 이를 계기로 해군은 한반도의 전 해역을 수호하는 군에 걸맞게 체제를 정비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갔다. 동시에 해군은 전통시대의 수군을 계승하고 현대 해군사를 조명하는 작

7)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 1954, 114쪽.

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진 한국의 해양 역사를 집대성한 『한국해양사』⁸⁾와 해방 이후 현대 해군의 창설과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한 『대한민국해군사』는 그 주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⁹⁾ 한국 해군의 대표적 상징인 해군기는 1961년에 발간된 『대한민국해군사』(행정·작전 합편) 제3집에 그 제정 과정이 실려 있다. 해당 역사서에 서술된 해군기와 관련한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1] 여기서 먼저 해군기의 제정을 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자면, 원래 海防兵團 시대에는 따로이 단기 또는 함정기가 없고,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①-2] 그리고 4279년(1946)에 해방병단이 朝鮮海岸警備隊로 발족하여 새로운 임무를 전개하게 됨과 함께 새로이 隊 또는 대한민국해군을 대표하는 旗의 제정·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간부들의 신중 토의 결과로 眞藍色紙 기폭의 우측 4분의 1 方形 내에 태극을 중앙으로 닻(錨) 두 개를 사방으로 교차하는 그림을 넣어서 대한민국해군을 의미하는 함정기를 제작하여 함정상 또는 경비대 건물 등에 사용하게 되니 이것이 대한민국 해군기의 시초이었다.

[①-3] 그 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조선해안경비대가 대한민국 정규 국군인 대한민국해군으로 발족되면서도 경비대 시대의 隊旗를 그대로 군기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6·25 공산 남침으로 인한 3년간의 전란 중에 있어서 UN 해군의 일원으로 적함을 무찌르고 모든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동서남 삼면의 해상

8)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韓國海洋史』, 1954.

9)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이 현대 한국 해군사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것은 1954년이였다. 당시 발간된 역사서는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대한민국해군사』 발간 작업은 오늘날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서 감명 깊게 함정상에 휘날리던 것도 곧 이 해양경비대 (해안경비대 - 필자 주) 시대부터 사용되던 해군기이었다.

[①-4]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 해군기로 정식 결정을 보게 된 것은 휴전 후 4288년(1955) 9월 5일 海軍服制委員會의 결의에 의한 것이며, 동년 21일에는 해본발 제4624호 참모총장 예규 통첩으로 시달을 보게 된 것이다.¹⁰⁾

해군기의 제정 역사는 위 『대한민국해군사』의 서술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문의 내용을 크게 네 문단으로 구분하여 서술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제시한다.

먼저 ①-1의 서술 내용은 해방병단시대 해군기에 대한 사용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해방병단이 창단되던 당시에는 단을 대표하는 단기 또는 함정용 해군기가 없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대용하였다고 한다. 해방병단이 창단된 시기가 1945년 11월 11일이고,¹¹⁾ 그 뒤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된 것이 이듬해인 1946년 6월 15일이므로¹²⁾ 해군기를 제작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서술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해방 직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해방병단 창설에 여념이 없던 실정이었으므로 해군기 제작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군함이 국가를 상징한다는 근대적 개념의 해군 문화가 통용되던 시기였으므로 해군기 대신 태극기의 사용은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방병단시대에는 해군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다음 ①-2의 서술 내용을 보자. ①-2는 해방병단이 조선해안

10)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22쪽.

11)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앞의 책, 1954, 19~20쪽 ; 海軍本部, 『海軍30年史』(1945~1975), 1978, 10~11쪽.

12)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변경되었다(海軍本部, 앞의 책, 1978, 13쪽).

경비대로 개칭된 이후로 사용된 해군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조선해안경비대가 1946년 6월 15일자로 발족함에 따라 경비대를 대표하는 해군기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간부들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해군기의 제작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제작된 해군기는 진남색을 바탕으로 기 우측¹³⁾ 1/4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닻 두 개를 배치하는 문양으로 하였고, 이렇게 제작된 군기가 해군기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되던 1946년 6월 15일 이후의 어느 시점에 처음 출현하였다는 서술은 타당성이 높다. 현전하는 당대 자료 속에 해군기가 실제 등장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문양 면에 있어서는 당시의 해군기와 바로 뒤 시기의 해군기 사이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①-2의 서술에 따르면 당시 제작된 해군기는 진남색 바탕지에 좌측 상단 1/4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닻으로 형상화된 문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대의 해군활동이 수록된 해군화보집에는 그와 조금 다른 문양의 해군기가 실려 있다.¹⁴⁾ 이 자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해군기 제작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해군기 제작과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는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해군기가 제작되었고, 그 문양은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과 교차된 닻이 장식된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작된 해군기 문양은 변함 없이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군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자료는 그것과 다른 문양이기에 새롭게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

13) 해당 역사서에는 우측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좌측의 오키이다. 이하 좌측으로 통일한다.

14)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바다로 세계로 - 寫眞으로 본 海軍五十年史(1945~1995)』, 1996, 17~20쪽. 해군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 보관하고 있다. 관련 사진자료에 대한 분석은 3장에서 상론한다.

①-3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제작된 해군기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는 물론 6·25전쟁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동서남 해역의 해상작전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정부수립기와 6·25전쟁기에 해군기가 육상과 해상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에 사용되던 해군기 문양이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시기와 그 이후인 6·25전쟁기까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서술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해군기가 촬영된 관련자료 등으로 보아 대체로 대한민국해군이 정식 발족하던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등장하는 해군기 문양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의 해군기 문양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한민국해군이 발족한 뒤에 사용된 해군기 문양에 대한 서술 내용은 보완이 요구된다.

①-4는 해방병단을 시작으로 조선해안경비대, 이후 대한민국 해군에 이르러 해군기가 공식적인 승인을 거쳐 제정된 사실을 담고 있다. 해군기가 제정된 일자에 대해 1955년 9월 5일자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역사서의 이어지는 기록을 통해 명확히 입증된다.¹⁵⁾ 즉 해군 복제규정이 1952년 2월 28일에 일괄적으로 제정되고,¹⁶⁾ 장병들이 사용하는 복식과 해군 예식을 제·개정하는 심의 기구로 해군복제위원회(海軍服制委員會)가 1954년 10월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서술 내용은¹⁷⁾ 해군기가 1955년 9월 5일에 한국 해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정식 의결

15)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4~25쪽, '복식관계 결정사항표' 참조. 1955년 9월 15일자로 서술한 견해도 있으나 오독으로 판단된다(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海軍』 272호, 해군본부 정훈감실, 1977, 160쪽).

16) 박원규, 앞의 글, 1977, 152쪽.

17) 해군복제위원회의 제정은 1954년 10월 13일 해군발 제2700호에 의거하였다. 제1차 해군복제위원회는 장호근 대령을 의장으로 동년 10월 28일에 개최되었다(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3쪽).

<자료 1> 해군기(1987)



되었다는 사실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당시 제정된 해군기는 진남색을 바탕으로 그 좌측 상단 1/4 크기의 흰색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흑색 앵커를 새겨넣은 형상

이었다. 이 문양은 오늘날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해군기 문양과 동일하다. 1955년 제정된 해군기와 동일한 문양의 1987년 해군기를 제시하면 자료 1과 같다.¹⁸⁾

한편 『대한민국해군사』는 해군기 제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있는 내용도 있다. 바로 해군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는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에 그 주인공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리라 본다. 해군기가 제정된 뒤 그 문양이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문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위 서술 내용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해군이 창설되던 초창기에 출현한 대표적인 문양인 만금 동시대는 물론, 이후로 등장하는 해군의 여러 문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18) 海軍士官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76쪽(도판번호 126). 흰색, 흑색은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색상이자 전 세계 해군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이다.

3.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그 문양

1945년 11월 11일은 한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이 탄생한 날이었다. 한국 해군은 해방병단이 탄생하던 1945년 11월부터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창군기로 명명해

<자료 2> 해방병단 함정과 태극기(1946.)



오고 있다.¹⁹⁾ 창군기는 정부 수립과 더불어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는 등 체제 수립과 변화가 수반되던 역동적인 시기였다. 하지만 인사, 전력, 군수 등 해군의 여러

영역에서 질적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패망한 일제가 버려두고 간 유산과 해방정국기를 이끌던 미군정의 제도와 문화가 혼용되던 열악하기 짝이없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해군은 사관의 임명, 장병들에 대한 계급 미부여, 피복 및 복제가 마련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²⁰⁾ 점차 미해군식 제도를 수용

19)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1996, 앞의 책, 1~33쪽 ; 해군전투발전단, 『해군상식 100문 100답』, 2004, 21~26쪽. 한국 해군의 시대구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209~211쪽 참조.
20)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1, 29~30쪽 ;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회장의 변천과 그 함의」, 『군사』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250~252쪽.

하면서 발전을 모색해 나아갔다.

해군이 처한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해군을 상징하는 해군기의 제작과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대한민국해군사』가 당시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듯이,²¹⁾ 태극기가 해군기를 대신하여 함정상에 게양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해방병단 문구가 새겨진 함정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창군기 사진(자료 2)은²²⁾ 이러한 실정을 잘 보여준다. 이 사진자료에 주목해보아 해방병단 시절에는 별도의 해군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지 않았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1946년 6월 15일에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된

<자료 3> 해군기(1946.8.15.)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자료 3은 1946년 8월 15일에 광복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남대문 쪽으로 행진하던 조선해안경비대 대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다.²³⁾ 이 사진에

창군기 해군 복제의 미비적 상황과 그 실상에 대해서는 박원규, 앞의 글, 1977, 151~160쪽; 김정자, 『한국군복의 변천사』, 민속원, 1998, 340~341쪽; 金舜圭編,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270~271쪽 참조.

21)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쪽.

22)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15쪽(해방병단 함정).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23)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17쪽(남대문 쪽으로 행진하는 해안경비대).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서 흥미로운 점은 좌측 병사가 들고 행진하는 태극기와 대칭하여 우측 병사가 들고 있는 해군기 문양이다. 『대한민국해군사』가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 이후 해군기가 출현하고 있음은 설명해주지만, 그 문양에는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해군사』는 동시기의 해군기 문양이 진남색 바탕지에 좌측 상단 1/4 크기의 방형 내에 태극과 교차된 닷이 새겨진 것으로 서술하였는데,²⁴⁾ 사진상으로 보아 둥근 태극 형상은 보이지만 닷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진이 조금 흐릿하고 해군기가 접혀진 부분이 있어 실제 닷 문양의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해군기 문양에 닷이 반영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당대 그 문양이 보다 선명하게 촬영된 해군기 사진을 제시하면 자료 4와 같다.

자료 4는 해군 창설 2주년 기념행사에서 해군기를 들고 있는 호기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²⁵⁾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1947년 11월 11일이었고, 기념행사 장소는 진해였다.²⁶⁾ 이 사진자료는 앞서 제시한 사진자료 3과 비교하여 당시 해군기 문양을 훨씬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군기를 들고 있는 기수가 해군기를 수직에 가깝도록 내리고 있기 때문에 태극과 닷 문양의 유무를 쉽게 파악할 있다. 해당 사진에서 태극 문양은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닷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적 근거는 해군기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보여진다. 우선 해방병단이 창단되어 그 명칭이 유지되던 1946년 6월 14일까지 해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해

24)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22쪽.

25)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18쪽(해군창설 2주년 기념 행사에서 해군기를 들고 있는 호기대).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26) 위와 같음.

<자료 4> 해군기(1947.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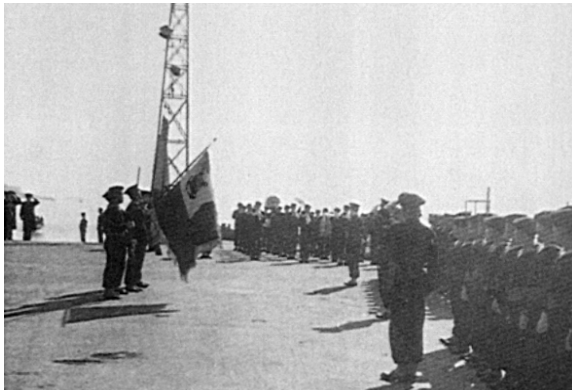
군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군함의 법적 지위가 국가를 상징하므로 해군기 대신 태극기를 당분간 해군본부와 함정 상에 게양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해군을 대표하는 해군기가

처음 제작된 것은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던 1946년 6월 15일 이후였다. 그 구체적인 시점은 광복 1주년을 기념하여 조선해안경비대가 1946년 8월 15일 축하 행진을 하는 사진자료(자료 3)에 의지해보아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시점 혹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던 시점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광복 1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군기를 제작하였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당시 해군기는 진남색 바탕지에 좌측상 1/4 크기의 흰색 방형 내에 태극이 새겨진 문양이었다. 『대한민국해군사』는 닷 문양도 서술하고 있어 마치 해군기가 조선해안경비대 시절부터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선해안경비대 시절의 해군기에는 닷 문양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²⁷⁾

27) 1970년대 공문서 중에는 조선해안경비대가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에 닷이 포함된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의 해군기가 처음으로 제정된 것처럼 기록한 것들이 있다[「군기자료 제출 회신」,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사운영 1020호(1967.2.21.) ; 「군기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군 244-1514호(1974.4.4.)]. 하지만 관련 사진 자료로 보아 닷은 그 이후의 시기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해군기에 닷 문양이 반영되어 현재의 해군기와 동일한 문양으로 완성된 것은 언제였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사진자료 4의 해군기가 촬영된 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진자료 4의 해군기가 촬영된 시점은 1947년 11월 11일이다. 이는 적어도 1947년 11월 중순까지는 해군기 문양상에 변화가 없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그 뒤로 촬영된 해군기 사진에는 다른 문양의 해군기가 등장한다. 다음 자료를 보자.

<자료 5> 해군기(194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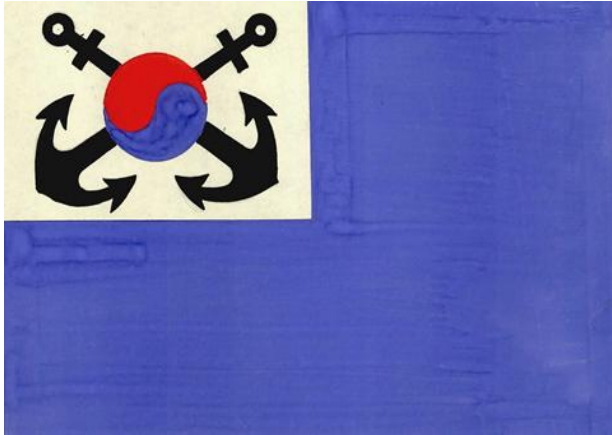
자료 5는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BOXER함의 함장을 영접하는 행사를 촬영한 사진이다.²⁸⁾ 행사가 있었던 시기는 1949년 3월이었고, 장소는 인천 경비부에서였다. 이 사진

에서 흥미로운 점은 좌측에 정렬해 있는 해군기수가 들고 있는 해군기 문양이다. 1947년 말까지 사용된 해군기 문양과 비교하여 1949년 3월 당시의 해군기 문양에는 교차된 닷이 반영되어 있다.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 사진에서 닷을 식별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는 해군기 문양이 1949년 단계로 접어들면서 현재와 동일한 완성된 문양으로 변화되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자료에 주목할 경우 해군기 제작이 완성된 시점은 1949년 초반으로 설정할

28)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1996, 20쪽(미 항모 BOXER호 함장 영접 장면). 사진 원본은 해기단이 소장하고 있다.

수 있음직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해군이 조선해안경비대에서 대한민국해군으로 정식 발족한 점이다. 국가적으로나 해군 내부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던 역사적인 시점에 해군을 대표하는 문양의 해군기가 새롭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정해봄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 닻을 형상화한 해군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더불어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1948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제작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²⁹⁾ 결국 이렇게 제작된 해군기는 6·25전쟁기에 해군을 상징하는 군기로 널리 사용되었고, 그 뒤 1955년 9월 5일에 이

<자료 6> 해군기 문양(1959.10.15.)



르러 해군복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해군기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 제정된 해군기와 동일한 문양의 1959년 10월 15일자 해군기 자료를 제시하면 자료

6과 같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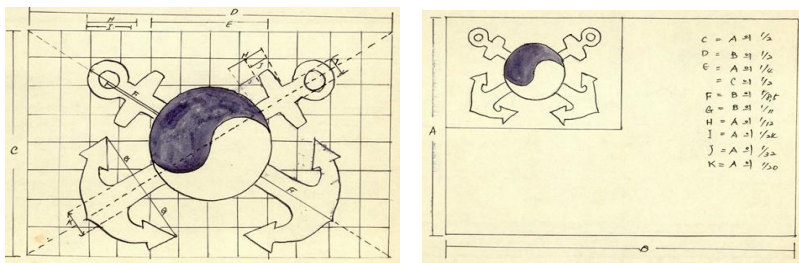
29) 1949년 3월에 완성된 문양의 해군기가 등장하고 있는 점에서(자료 5) 필자의 이러한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 시점을 1948년 8월로 반드시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1948년대 전반기를 특정짓는 명확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그 제정 시점은 조금 수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30)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4292. 10.15.). 당대 원본 자료는 <별지 1> 참조.

4. 해군기 문양의 의미와 제작의 주인공들

1955년에 정식으로 승인된 해군기는 국방부 지시³¹⁾에 따라 1959년 10월 15일자 「군기 도시 제출의 건」 명칭의 공문서로 작성되어 그 문양과 의미, 규격 등이 보고되었다.³²⁾ 해군기의 치수와 규격, 제작 방식은 이보다 조금 뒤 시기인 1962년 10월 20일자로 작성 보고되었다. 그 내용은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자료 7),³³⁾ 당시 제정된 해군기 규격은 오늘날의 해군 군(부대)기 규정에 수록된 규격과 동일하다.³⁴⁾ 이러한 사실은 1955년에 공식적으로 제정된 해군기가 변함 없이 현재의 해군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료 7> 해군기 규격(1962.10.)



그렇다면 당시 제정된 해군기에는 어떠한 문양사적 의미가 반영되

- 31) 「군기 도시 제출의 건」,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국방총 제10878호 (4292.9.23.).
- 32)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 (4292.10.15.).
- 33)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사운 영 제1020호(1962.10.20.). 당대 원본자료는 <별지 2> 참조.
- 34) 해군본부, “해군 군(부대)기 규정,” 『해군규정』 제2511호, 2021.3.9. 일부개정, 28-14쪽.

였으며, 해군기 제작에 참여하였던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해군본부가 국방부 앞으로 1959년 10월 15일에 보고한 공문의 ‘군기 도시 설명서’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해당 자료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군기 도시 설명서. 1. 도해에 대한 상징. (가) 해군기의 제정을 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자면 원래 해방병단시대에는 따로이 단기 또는 함정기가 없어 태극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던 중 단기 4279년도(1946 - 필자 주)에 해방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하게 되어 새로운 업무를 전개하게 됨과 함께 새로이 대 또는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는 기의 제정이 요구된 것임. (나) 여기서 당시 몇 간부들의 신중 토의 결과 진남색지 기폭의 좌측상 1/4 방형 내에 태극을 중앙으로 닻(錨) 두 개를 사방으로 교차하는 그림을 넣어서 대한민국 해군을 의미하는 함정기를 제작한 것임. (다) 기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1) 진남색은 대한민국 삼면의 바다를 의미하며 (2) 닻(錨)을 교차한 것은 우리 해군의 단결을 의미한 것임. (3) 그 중앙의 태극기는 국가를 표시한 것임. 2. 고안자. 예비역 중장 孫元一·鄭兢謨, 예비역 소장 金永哲·金一秉 3. 제작 연월일. 단기 4278년(1945 - 필자 주) 11월.³⁵⁾

위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해군기 제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이 『대한민국해군사』의 내용과 거의 그대로 합치한다는 점이다.³⁶⁾ 해군기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 제작에 참여한 인물, 제작의 연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록 내용은 『대한민국해군사』의 역사 서술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해군사』가 이보다 2년 뒤인 1961년에 발행되었던 사실에 주목해볼 때

35)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 (4292. 10. 15.).

36) 海軍本部 政訓監室, 앞의 책, 1961, 21~22쪽.

위 공문서의 해군사 관련 서술을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제정된 해군기를 구성한 각각의 문양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반영되었다. 먼저 바탕을 장식하고 있는 진남색은 바다를 표현한 색상으로 삼면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바다를 상징한다. 닳을 교차시켜 배치한 것은 우리 해군 구성원들의 단결을 의미한다.³⁷⁾ 중앙을 장식하고 있는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각각의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에 따라 제정된 해군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종합하면 굳은 단결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삼면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한편 위 자료는 당시 해군기 제작에 참여했던 인물들 또한 명시하고 있다. 예비역 중장 손원일·정공모(鄭兢謨) 제독과 예비역 소장 김영철(金永哲)·김일병(金一秉) 등 4인이 그 주인공들이다.³⁸⁾ 하지만 이들 4인을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같은 문서의 뒷장에 첨부된 「문서처리전」 란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그 고안자가 불명확하다는 견해도 병기하고 있다. “88년(1955 - 필자 주) 예식복제위원회에서 ‘해군기를 제정함에 있어 종전에 관습적으로 사용해오던 기를 해군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안자, 제정 연월일, 상징의 설명 등이 불명함.”³⁹⁾ 해군본부가 국방부로 보낸 공문서 본문에서는 해군기 고안자로 손원일·정공모·김영철

37) 교차된 닳에 대해서는 ‘연합된 힘’, ‘연합된 해양력’으로 의미를 부여한 자료도 있다. 「군기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근 244-113호 (1974.1.9.); 「군기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근 244-1514호 (1974.4.4.). 당대 원본자료는 <별지 3·4> 참조.

38) 해당 공문서에서 김일병 제독은 타자로 작성한 글씨가 아닌 수기로 기록되어 있다.

39) 「군기 도시 작성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96호(4292.10.15.).

· 김일병 등 4인의 예비역 제독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별첨의 「문서처리전」에서는 고안자는 물론 제정 일자, 상징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들을 밝혀내는 작업을 곤혹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당시 공문을 작성했던 담당자는 왜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기록을 남겼던 것일까?

1959년 10월 15일 당시 공문 작성자가 해군기 제작자와 관련하여 모호한 기록을 남겼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하였다. 동년 10월 14일 즈음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보고 용지에는 위 제작자와 합치되지 않는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1. 해군기 제정에 대하여. (가) 제작자. ... 孫元一, 鄭兢謨, 張湖根 (나) 기 설명. ... 靑色은 삼면의 바다를 의미하고, 닳을 교차한 것은 단결을 표시한 것이며, 중앙 太極旗는 국가 표기로 한 것임. 4292(1959년 - 필자 주). 10. 14. 1815. 전 參謀總長 閣下로부터 확인하였음(전화로) ○○○께서40)

위 자료는 해군본부 인사국장이 교육단장 앞으로 1959년 10월 14일자로 발송한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 공문에 첨부된 메모 보고의 내용이다. 이 메모 보고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해군기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자료는 앞서 제시한 10월 15일자 공문서에 명시된 인물들과 조금 다르다.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제작자 명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김영철·김일병 제독은 10월 15일자 공문에 있음에 비해 장호근(張湖根)은 메모 보고에만 기록되어 있다. 메모 보고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해군기 제작에 참여한 주인공들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근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10월 14일 1815시에 전 참모총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이다. 여기서 전 참

40)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발 제3172호 (4292.10.14.). 당대 원본자료는 <별지 5> 참조.

모총장은 당시를 기준으로 바로 이전에 참모총장을 역임한 인물일 수 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어렵다. 초대 참모총장(당시 명칭은 총참모장)을 역임한 손원일 제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해군기 제작자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작성된 메모 보고의 내용과 기존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자⁴¹⁾는 10월 15일자 공문의 뒷장에 별첨으로 고안자가 불명확하다는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공문서와 메모 보고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손원일과 정궁모 제독은 그 주인공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공문서에 언급된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메모 보고에 기록된 장호근 역시 그 개연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양 자료상 차이가 있지만 이들 3인은 손원일·정궁모 제독과 더불어 해방병단이 창단되던 시점부터 해군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이 창군기 이래 해군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혹은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다 확실한 자료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으로 단정하는 것은 유보한다. 결론적으로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들이 확실하고,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장호근은 개연성이 높은 인물로 추정할 수 있겠다.⁴²⁾

41) 당시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은 최금용 준위였다.

42) 관련 자료상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해군기 제작의 주인공임에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나머지 인물들 역시 그 주인공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규명은 훗날의 추가적인 자료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5. 해군기 문양의 연원과 영향

한국 해군의 얼굴인 해군기 문양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세계 해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양과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간결하면서도 조화롭게 반영한 형상이다. 닳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과 군함을 상징한다.⁴³⁾ 이에 비해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다.⁴⁴⁾ 해군기 색상 역시 보편성과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다. 좌측의 방형 공간은 흰색, 그 안에 새겨진 닳은 흑색으로 세계 해군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색상이다. 이에 비해 해군기의 바탕지는 진남색으로 우리 해군의 독특한 색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이며 고유한 속성을 간직한 해군기에 대하여 문양사적인 차원에서 주목해볼 점은 그 문양이 무엇으로부터 연원하였고, 이후의 해군에 존재하는 어떤 문양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이다. 문양사적인 연원에서 주목해볼 문양 소재는 단연 태극과 교차된 닳이다. 태극은 앞서 강조했듯이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닳은 한국의 고유한 문양과는 거리가 있다. 더구나 그 문양은 하나가 아닌 두 개를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닳의 형상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미국 해군장교들과 한국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 문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3) 신성재, 앞의 논문, 2015, 253쪽.

44) 金舜圭 編, 앞의 책, 1998, 211쪽 ; 신성재, 「한국 해군의 ‘근속 30년 휘장’ 제정사」,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208쪽.

<자료 8> 한미 해군장교의 모표
(1952.12.)



<자료 9> 한국 해군장교 모표
(1951.1.)



먼저 자료 8은 손원일 제독이 1952년 12월 10일에 미국 해군 교육소를 시찰하였던 당시 미측 장교 및 작업공과 함께 촬영된 사진이다.⁴⁵⁾ 자료 9는 1950년 초에 한국의 해군장교들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모표이다.⁴⁶⁾ 두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손원일 제독이 착용하고 있는 정모에 부착된 모표와 뒤에 서 있는 미국 해군장교가 착용한 정모의 모표 문양이 거의 유사한 점이다. 중앙의 등근 원형 속에 새겨진 문양이 다를 뿐 모표 상단을 장식하고 있는 독수리와 교차된 닻은 동일한 문양이다.⁴⁷⁾ 양국 해군장교 모표가 사용된 선후 관계는 미국 해군이 한국 해군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점이다. 당연히 한국 해군장교들이 미국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는 모표를 모방하였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실제 한국 해군장교들은 1956년 8월에 독창적인 거북선형 모표가 출현하

45) 윤경호 외,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해군사관학교, 2015, 8쪽 ; 신성재, 「해군장교 정모 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 (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군사관학교박물관, 2015, 295쪽.

46)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앞의 책, 1997, 66쪽(도판 109).

47) 중앙에 새겨진 문양의 차이는 미국 해군장교 모표는 성조기를 방패형으로 제작한 형상이고, 한국 해군장교의 모표는 동아시아 지구본을 표현한 형상이다.

기 전까지 한동안 독수리가 형상화된 미 해군식 문양의 모표를 사용한 전력이 있다.⁴⁸⁾ 이런 점에서 추정컨대 한국의 해군기에 반영된 교차된 닷은 해방 이후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에 미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에 새겨진 닷 문양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미해군식 독수리형 모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952년 12월 이전의 어느 시점,⁴⁹⁾ 1951년 1월⁵⁰⁾ 혹은 동년 6월⁵¹⁾ 등으로 파악되는데, 미 해군장교들의 모표 문양은 그보다 훨씬 이른 미군정기부터 인지되고 있었다. 미군정기에 사용되고 있던 미국 해군장교의 모표에 새겨진 닷 문양은 한국 해군장교들 사이에서 널리 인지되었을 것이고, 이를 누차 접해오던 상황에서 해군기를 구성하는 닷 문양으로 선택하였음직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아 해군기 문양에는 태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한 문양과 함께 닷으로 표현된 미 해군식 문양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 문양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다.

한국의 고유성과 미국 해군으로 대표된 보편적 특징이 반영된 해군기는 제정된 이래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문양적인 측면에서 해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도 해군기가 제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이를 계기로 해군에 속한 다양한 부대의 군기가 출현하고 제정되는데 있어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1962년 이후로 한국함대,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단(신병훈련소) 등 다양한 부대들이 자신들의 부대를 상징하는 부대기를 제작하였는데, 그 제작의 기준과 시원은 해군기로부터 비롯하였다.⁵²⁾ 대소 규모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군에 속

48) 한국의 해군장교 모표가 독수리형으로부터 거북선형 문양으로 새롭게 개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신성재, 앞의 논문, 2015, 260~274쪽 참조.

49) 신성재, 앞의 논문, 2015, 256쪽.

50) 海軍本部, 앞의 책, 1978, 154쪽;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앞의 책, 1997, 66쪽.

51) 해군본부, 앞의 책, 1996, 374쪽.

52) 해군의 각 부대가 부대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해

한 각 부대의 부대기는 해군기 제정을 계기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자료 10> 해군 근속 30주년 기념휘장(1982.)



한편 해군기는 문양사적인 측면에서 장교와 부사관의 30년 근무 공적을 현양하는 '해군 근속 30주년 기념 휘장' 문양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자료 10으로 제시한 휘장이 바로 1982년에 제정된 해군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이다.⁵³⁾ 해군기 문양과 비교하여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에서 주목되는 문양은 태극이다. 이 태극 문양에 대해서는 해군보다 조금 이른 1979년부터 육군이 사

용하던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의 중앙에 새겨진 태극에 유의하여 육군의 그것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견해가 있다.⁵⁴⁾ 이 견해와 함께 해군기에 나타나는 태극 문양도 유의해봄직하다. 창군기 이래 태극이 해군기를 구성하는 핵심 문양으로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던 현실에 비추어 보아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을 제정하던 당시에 해군기의 태극 문양을 참작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태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양으로 해군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친숙해졌던 까닭에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의 소재로 채택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태극과 교차하는 닳으로 형상화된 해군기 문양은

군기 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예하 부대로까지 확대되었다. 1962년 수집된 다양한 부대기 자료는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 해본인사운영 제1020호(1962.10.20.) 참조.

53) 金舜圭 編, 앞의 책, 1998, 433쪽 ; 신성재, 앞의 논문, 2021, 211쪽.

54) 신성재, 앞의 논문, 2021, 212쪽.

장교의 견장형(肩章形) 및 수장형(袖章形) 계급장을 장식하는 표지장(標識章)으로도 사용되었다. 해군 기본병과를 나타내는 병과(兵科) 표지로 사용된 사례가 그것이다.⁵⁵⁾ 창군 이후 1950~1960년대 장교의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을 보면 금줄로 장식한 계급 표시와 함께 원형으로 둘러싸인 내부에 별이 장식된 병과 표지가 부착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⁵⁶⁾ 한국 해군이 차용하던 이 병과 표지의 별 문양은 본래 미 해군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별 문양은 태극과 교차된 닳으로 이루어진 해군기를 형상화한 문양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해군장교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에 반영된, 해군기 문양을 차용한 태극과 교차하는 닳의 병과표지(기본병과) 문양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면서 장교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6. 맺음말

해군기는 한국 해군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이 글은 한국 해군을 대표해온 해군기의 제정 과정과 문양에 반영된 상징,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해군기를 공식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역사서는 해군본부가 1961년에 발행한 『대한민국해군사』이다. 해군 역사서는 해군기가 해방병단에서 조선해안경비대로 새롭게 발족하던 1946년 6월 15일에 제정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정된 해

55) 당시 병과(兵科)의 의미는 특수병과(군의, 위생, 군목, 기술, 경리)에 대비되는 기본병과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병과라는 용어 대신에 기본병과를 사용한다(해군본부, “해군 복제(휘장) 규정,” 『해군규정』 제2545호(2021.8.24.), 일부개정, 157~112쪽.

56) 金舜圭 編, 앞의 책, 1998, 343~345쪽.

군기는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으로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 교차된 닻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대의 해군화보집에는 닻이 없고, 태극만이 존재한다.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해군기는 조선 해안경비대 시절에 처음 출현하였으나 그 문양은 진남색 바탕지에 태극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해군기가 오늘날과 같이 교차된 닻이 포함된 완성된 문양으로 제정된 것은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해군이 출범하던 1948년 8월 15일 즈음이었다. 해군기를 구성하는 문양에는 국가 정체성과 구성원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가 반영되었다. 바탕을 이루는 진남색은 삼면으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바다를 나타낸다. 교차된 닻은 해군 구성원들의 굳은 단결을 의미하고,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해군기를 제작한 주인공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 제작자가 일부 다르게 기록된 두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겨진 하나의 자료에는 손원일·정궁모·김영철·김일병 제독이 적시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는 손원일·정궁모 제독과 장호근이 기록되어 있다.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손원일·정궁모 제독은 그 주인공이 분명해 보인다. 김영철·김일병 제독과 장호근 역시 개연성은 높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군기의 문양 중 태극은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그러나 교차된 닻은 해방 후 미군정기에 미 해군장교들이 사용하던 모표 문양에서 유래한다. 미 해군장교들의 모표 문양이 교차된 형상인데, 창군기부터 미국 해군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던 한국 해군이 이를 해군기 문양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해군기 문양에는 태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한 문양과 함께 닻으로 표현된 미 해군식 문양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군기는 제정된 이후 해군의 다양한 부대기 제정에 제도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군본부 예하의 부대기는 해군기의 규정과 기준

을 근간으로 제작되었다. 해군기는 장교와 부사관의 30년 근무 공적을 기념하는 ‘근속 30주년 기념휘장’ 문양에도 영향을 끼쳤다. 휘장의 중앙에 장식된 태극 문양이 그것이다. 태극이 창군기 이래 해군기를 구성하는 핵심 문양으로 사용되어온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속 30주년 기념휘장의 문양 소재로 자연스럽게 채택되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와 함께 태극과 교차하는 닳으로 형상화된 해군기 문양은 해군장교의 복제 및 계급장 문양에도 영향을 끼쳤다. 해군장교의 견장형 및 수장형 계급장을 장식하는 문양으로 태극과 교차된 닳의 해군기 문양이 사용되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

<참고자료>

<별지 1> 군기 도시 작성 제출(1959. 10. 15.)

문서구분		해군		문서부호		등록관	
()급비밀 보름		공문기안지		인1-6			
서명	기안자	담당관	과장	과장	참모	참모(부)	참무지휘관
	김영중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2경	0401123
일자	4292.10.15		10.15				
민계간서영문							
발한인호	해본인발제3126호			발한인호	4292.10.15		
수신자 (결유·참조)	국방부장관			발신자	참모총장		
<p>제목 <u>군기 도시 작성 제출</u></p> <p>국방출제 10878호 (92. 9. 19.) 에 의거 별첨과 여 히 작성 제출함.</p> <p>별첨 1. 군기 도시...2부 2. 도시설명서...2부</p>							
				342			
봉정-1 (4290.07.19)				경지 27cm X 20cm			

군기 도시 설명서

1. 도해에 대한 상징

(가) 해군기의 제정을 보기까지의 경로를 살펴 보자면 원래 해병 병단 시대에는 따로 이 단기 또는 함정기가 없어 해군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모든종 단기 4279년도에 해관 병단이 조선해안경비대로 발족하게되어 새로운 업무를 전개 하게됨과 함께 새로히 데, 또는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하는 기의 제정이 요구 되었임.

(나) 여기서 당시 몇 간부들의 신중 토의 결과 진남색지 기폭의 좌측 상 4/1 알형네에 해국을 중앙으로 단(鎗) 두개를 사방으로 교차하는 그림을 넣어서 대한민국 해군을 의미하는 함정기를 제작한 것임.

(다) 기의 부분적을 설명 하자면 다음과 같음.

- (1) 진남색은 대한민국 삼엽의 바다를 의미하며
- (2) 단(鎗)을 교차한것은 우리해군의 단검을 의미한 것임.
- (3) 그 중앙의 해국은 국가를 표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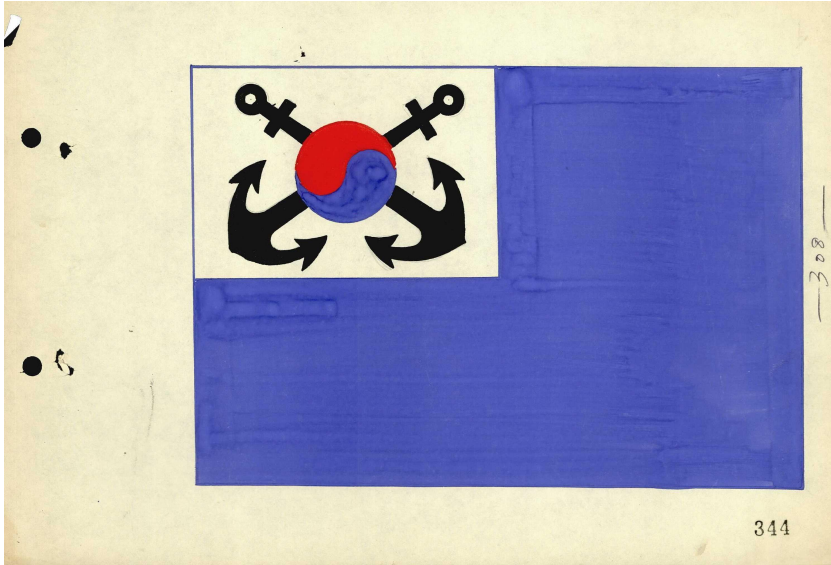
2. 고 안 자

예비역 중 장	손	원	일	(孫 元 一)
"	정	공	모	(鄭 淸 模)
예비역 소 장	김	영	철	(金 永 哲)
"	김	일	병	(金 一 秉)

3. 제작 년월일

단기 4278년 11월

- 307 -



문서처리진

발신처	국방부	주관서	인사국	집안	수차	2022.9.23
제목	군기 도시 제출의 건					
결	세	의	견	원리결재	의	견
국장						
부장						
과장						
담당관	해군 기의 도시 및 설명서를 작성 제출하겠음.					
처리요령	89년 여수복귀위원회에서 해군을 제정함에 있어 "선군의 慣習的으로 使用하오던 旗를 陸軍旗로 한다" 고 되어 이=므로, 夫案者, 陸軍 旗 陸軍 旗 陸軍 旗 陸軍 旗 說明 等) 說明 誌					

<별지 2>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1962.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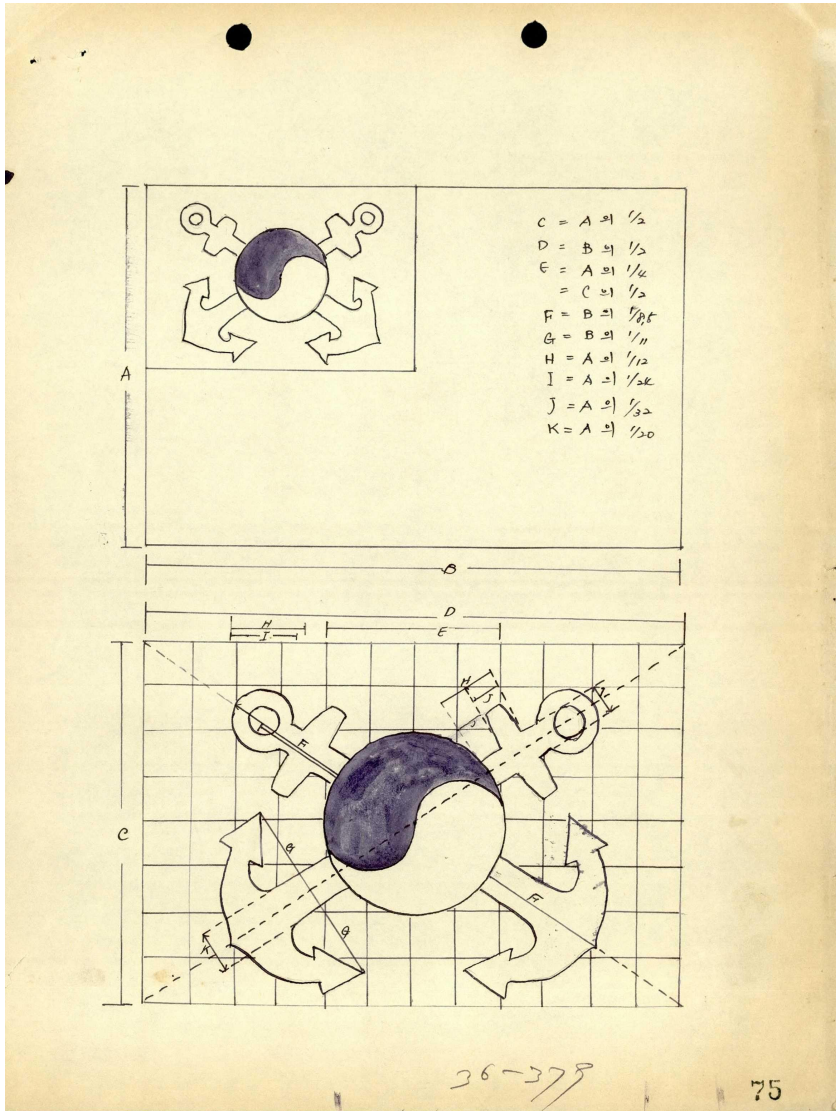
공 문 기 안 지

() 비밀

기안자	담당관	과장	부국장 (차감)	국장 (참모)	장부	모장	부휘	지휘관	지휘관
소속인사운영처상훈 계급준위 성명 최금용 42962. 10. 19.	[Handwritten Signature]								
합의									
제목번호	해본인사운영 1020	문서번호	1110		보존	한			
문서일자	1962. 10. 20.	통	[Handwritten]		중	경 1020			
수신 (경유참조)	국방부장관(참조:군무국장)		발신	참 모 통 장					
<p>제 목: 각종 군기 및 기치에 관한 자료 제출</p> <p>별 첨: (1) 해본 인참고시 1020.3 제 목: 해군 부대기 운영규정 (2) 해 군 기 (3) 해군 장성기</p> <p>1. 국 군무 1643호 (1962.8.2)에 의거 별첨과같이 제출합니다.</p> <p>배부처: 락(10)</p>									

행정-1(갑) 규격 27x20

36-380 74



<별지 3> 군기자료 제출(1974. 1. 9.)

내 입 렷 나 려 실 렷
기 록 안 록 용 지 하 자

분류기호	해본인군	전결규정 34 조 (4)항	
문서번호	244-113 호 (전화번호 옥4552)	인사처장	전결사방
처리기간			
시행일자	73.12.7 74.1.9		
보존년한	10/3		
보조기간	담당관	2222	협 조
	기안 책임자	소령 차영환	
경유 수신 참조	국방부장관	방심	해군참모총장
제 목	군기자료 제출	통제	
국인군 203.2-668 (73.12.7) 의거 당군 군기자료를 첨부와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해군기 칼타 사진 및 설명서 2부 2. 해군 장성기 칼타사진 8매 3. 군합 연통 도안 복사판 10부. 끝			
			정서
			관인
			반송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보급품 인계 구 인계 인출하자 </div>			257

해군서식 272 (71.12.1)
 물리성 제3호 (69.1.15)

2

190mm x 268mm 면상지 40g/m²

해군기 설명서

1. 제 식

- 가. 기폭의 가로 대 세로의 비는 3:2로 한다.
- 나. 좌측 상부 가로의 1/2, 세로의 1/2되는 부분은 직각으로 하고 그외는 진납색 바탕으로 한다.
- 다. 백색 바탕에는 단순한 흑색 및 2개를 코쳐시키고 코침점상에 적색 및 진납색의 태극을 놓는다.
- 라. 좌상부와 하부에 묶음줄을 단다.
- 마. 기폭 받두 밑에 치맥줄을 단다.

2. 색 식

- 가. 바탕의 푸른색은 바다를 상징
- 나. 닳은 해군을 상징
- 다. 닳은 두개 코쳐시킨 것은 연합된 것을 과시하며,
- 라. 태극은 한국을 상징함.

3. 채택일자

1945년 11월 11일

<별지 4> 군기자료 제출(1974. 4. 4.)

총기완용지

분류기호	해본인군	권결규정	3조 (4) 방	
문서번호	244-151호	(전화번호)	04552	
처리기간		군무처장	전결사항	
시행일자	1974. 4. 4	인사군무처장		
보존년한	3/1			
보조기간	담당관		협조	
기안 책임자				
경유수신참조	국방부 장관 인사국장	발신	해군 참모총장	통계 4/6
제목	군기자료 제출			
국민군 203.2-139 (24. 3. 18) 의거 당군 군기자료를 첨부와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해군기 칼타사진 2매 2. 해군기 설명서. 1부. 끝.				
청서				
관인	반공으로 똘똘마음 승평으로 통일하사			
발송				

해군서식 272 (71.12.1)
 종리형 제3호 (69.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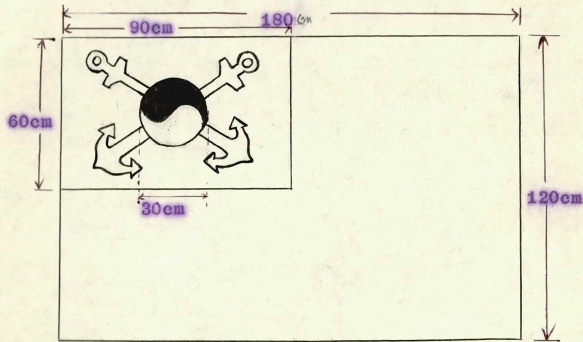
- 27 - 26 -

190mm x 268mm 해상지 40중 / 제2

208

해군 기 설 명 서

1. 제정년월일: 1946. 6. 15
2. 제정근거 및 규정: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조선 해안경비대로 개칭됨에 따라 현 해군기 최초로 제작 사용
3. 규 격 :



44. 도안 및 제작자: 미 상
5. 특 기: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가. 푸른 바탕은 바다 상징
 - 나. 두 개의 앵커 교차하는 연합된 해양력 표시
 - 다. 태극은 한국 상징

<별지 5>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1959. 10. 14.)

문서구분		해군				문서부호		등록관	
()급비밀		공문기안지				인-6			
서명	기안과	담당관		과장	부관	인사국장	부지휘관	지휘관	
	인사국	최금용		인사국	부관				
날짜	4292.10.13								
발한번호		해군인양제 3192호				발한연월일		92.10.14	
수신자 (결유·합조)		교육단장				발신자		인사국장	
<p>제목 복제 규정 중 추가 제정 회신</p> <p>해군인양제 1845호(92.10.7.)로 정의한 물건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개정 수록 하여 인쇄공이 오나 양리하시요</p>									
								349	
<p>— 3/3 —</p>									
문집-1 (4290.07/9)						평지 27cm X 20cm			

M E M O

429

수신자:

1. 海軍旗制定에 대하여.

의 制作者... 孫元一, 鄭廷諤, 張湖根

(1) 旗說明... 青色은 三面의 바다를 意味하도.

다음 2와 같은 樣式은 國法을 表示한 것이니.

中央에 旣有 國法 標示한 것이니.

4292. 10. 14. 08 15. 前 魯 將 總 長 閣 下 로 부 터 確 認

하오 (電 訊 記) 譯 文 紅 紙 4

발신자:

350

행정-2

(4292 3. 13)

용지 450,000매

규격 135 cm x 20cm

<참고문헌>

1. 1차 사료

『군기령』, 『玉浦』, 『해군규정』, 『해사학보』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관리번호 : 14-D-전-000020),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4.

2. 단행본 및 논문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 나의 海軍生活의 回想을 中心으로」,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海軍恤兵會出版部, 1951.

金舜圭 編,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http://uci.or.kr//G901:A-0008558523@N2M>

김정자, 『한국군복의 변천사』, 민속원, 1998.

<http://uci.or.kr//G701:B-00113842231@N2M>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s://doi.org/10.29212/mh.2008..68.209>

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해군』 272호, 해군본부 정훈감실, 1977.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 『軍史』 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https://doi.org/10.29212/mh.2015..94.247>

_____, 「해군장교 정모 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

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2015.

신성재, 「한국 해군의 ‘근속 30년 휘장 제정사」,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https://doi.org/10.15299/jk.2021.3.78.201>

윤경호 외,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 손원일 제독』, 해군사관학교, 2015.

<http://uci.or.kr//G901:A-0006563154@N2M>

海軍本部, 『海軍30年史』(1945~1975), 1978.

해군본부 군사연구실, 『바다로 세계로 - 寫眞으로 본 海軍五十年史(1945~1995)』, 1996.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 1954.

_____, 『韓國海洋史』, 1954.

海軍本部 政訓監室, 『大韓民國海軍史』 第3輯(行政·作戰合編), 海軍教材廠, 1961.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博物館圖錄』, 1997.

해군전투발전단, 『해군상식 100문 100답』, 2004.

(Abstract)

The Navy Flag : the symbol of Republic of Korea Navy

Shin, Seong-jae

The Navy Flag represents and symbolizes Republic of Korea Navy(ROK Navy). This passage aims to discuss o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for the flag, symbols inside it, and the historical meanings behind the Navy Flag, the representation of ROK Navy.

The official and historical documentation of the Navy Flag can be found in the text "Republic of Korea Naval History" published in 1961 by ROK Navy Headquarters. The text writes that the Navy Flag was first announced in June 15, 1946, when the Joseon Coast Guard was established. The original Navy Flag had the same design as the present one, exhibiting the Taegeuk symbol and the crossed anchors on the deep blue background. However, the anchors do not appear on the Navy's pictorial album published at that time. The analysis on the flag revealed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flag was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Joseon Coast Guard, the flag only had the Taegeuk symbol on its background, missing the crossed anchors. It was not until the official launch of ROK Navy, August 15, 1948, that the Navy Flag had the crossed anchors on its background as it is today.

The deep blue background, the crossed anchors, and the Taegeuk symbol, each one symbolizes the Korean seas surrounding the country, the naval solidarity, and Republic of Korea itself. It is certain that Admiral Son Won-il and Jung Geung-mo were the central figures in the making of the Navy Flag. Admiral Kim Young-chul, Admiral Kim Il-byung, and Jang Ho-geun are also likely to be involved in the process according to records, although further examination needs to be undertaken.

Of all the patterns in the Navy Flag, Taegeuk is a unique pattern symbolizing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 crossed anchors derive from the cap badges used by the United States Navy officers. The ROK Navy chose to adopt such pattern in times of the long-lasting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Navy. Thus, in terms of the history of patterns, the Navy Flag patterns include Taegeuk, the symbol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crossed anchors from US Navy.

After its establishment, the Navy Flag became the prototype model for the flags of the Navy units. It also influenced the badge of 30 year service for Navy officers and chief petty officers. The Navy Flag, which consists of Taegeuk and the crossed anchors, is also used in the insignias of naval officers.

Keywords : Republic of Korea Navy, Navy Flag, Pattern, Symbol,
Taegeuk(太極), anchor